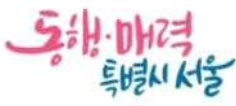


자료제공 : 2024. 5. 12.(일)

이 보도참고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참고자료

담당부서 : 미래공간기획관 미래공간기획담당관

미래공간기획담당관

김창규

02-2133-7640

사진없음 사진있음 쪽수 : 2쪽

노들예술섬사업팀장

박태욱

02-2133-7610

오세훈 시장, 상암 재창조 구상 밝혀

〈UAE 출장 기자 간담회, 9일(목)〉

- 오세훈 시장은 아랍에미리트 출장 중인 9일(목) 18시〈현지시간〉 동행 기자간담회(콘래드 아부다비호텔 행사장)에서 세계와 만나는 글로벌 서울의 관문이자, 일자리·주거·여가·문화·녹지가 공존하는 ‘상암 재창조 종합계획’ 관련 구상을 밝혔다.
- 오 시장은 “직장과 주거지가 가깝고 여가도 즐길 수 있는 말 그대로 직(職)·주(住)·락(樂)이 실현돼야 시민들의 삶의 질이 확보될 수 있는데, 안타깝게도 서울에는 유희부지 많지 않다”며 “상암 DMC는 하늘공원, 노을공원, 월드컵공원을 비롯해 한강공원까지 이어지는 유희공간과 녹지공간이 충분히 확보된 최적의 공간”이라고 말했다.
- 또한 쓰레기매립지를 녹지로 재탄생시킨 스토리텔링에 편(Fun) 기능을 더해 도시 경계 내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정원도시로 재탄생할 수 있는 잠재력도 있다고 덧붙였다.

- 아울러 현재도 지하철 6호선, 경의선, 공항철도 등 상암지역의 접근성은 비교적 용이한 편이지만 한강공원 등 각 거점에서의 더 편안한 접근을 위해 집라인(Zip Line), 모노레일, 무빙워크 등 최첨단 이동 수단을 활용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전했다. 또 현재는 각각의 공간으로 조성·운영 중인 ‘하늘공원’과 ‘노을공원’의 연결하는 방안도 가다듬고 있다고 밝혔다.

- 마지막으로 오 시장은 “이번 출장 중 확인한 해외 우수사례와 국내 도시 사례 등을 다방면으로 참고하고 적용해, 서울 서쪽 관문인 상암 일대를 가족 단위 여가와 휴식이 어우러진 서울을 대표하는 활력있는 매력공간으로 재탄생시키겠다.”고 강조했다.